



光州日報



광주 정당지지도 민주 30.8% 우리 30.6%

광주일보·조선일보·한국갤럽 '지방선거 7차 여론조사'

광주시장 박광태·전남지사 박준영 독주여전

5·31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지역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엇비슷하게 나타나 선거전에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시·도지사 후보 가상대결에서는 민주당 소속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열린우리당 후보들을 크게 앞서며 압도적인 우위를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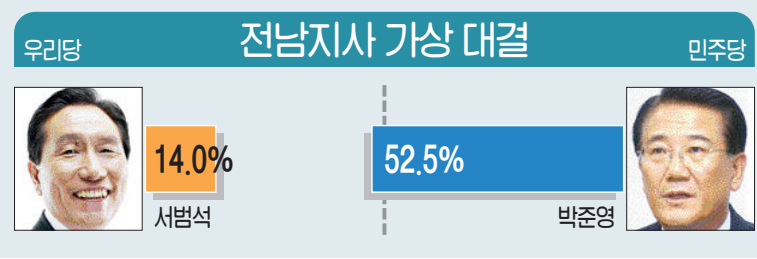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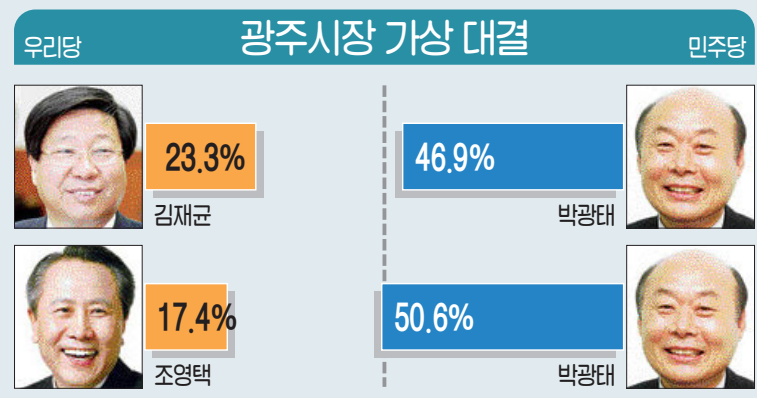
광주일보는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일 광주·전남 만 19세 이상 유권자 1천16명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제7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번 조사에서 광주시장 후보 지지도는 열린우리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 후보인 박광태 현 시장과 우리당 경선 후보인 김재균 전 북구청장,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과 각각 가상대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박 시장은 김 전 청장과 대결에서 46.9%를 얻어 23.3%를 기록한 김 전 청장을 배 이상 앞섰고, 조 전 실장(17.4%)과 대결에서는 50.6%를 기록해

그 격차를 더욱 벌렸다. 오병윤 민주노동당 후보는 두 차례의 대결에서 6.0%, 10.4%를 각각 기록했고,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진선수 전 부대변인은 1.4%와 2.7%를 얻었다.

전남지사 후보 가상대결에서는 민주당 박준영 현 지사가 52.5%를 기록해 다른 후보들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 열린우리당 서범석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14.0%, 민주노동당 박응두 후보는 7.5%, 한나라당 박재순 후보는 2.1%를 각각 얻었다.

광주·전남 전체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37.7%, 열린우리당 24.9%, 민주노동당 11.0%, 한나라당 3.0% 순으로 여전히 민주당 지지도가 높았다. 하지만 광주지역만을 놓고 볼 때는 민주당 30.8%, 열린우리당 30.6%로 오차범위를 감안할 때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백중세였다. 전남은 민주당이 42.3%로 열린우리당(21.1%)의 배에 달했으나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달 6차 조사때보다 4.8%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선거가 목전에 다가왔음에도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



▶해설 4면 ▶조사결과표 인터넷 광주일보(www.kwangju.co.kr)

응답층이 지난달 14.9%에서 이번에는 23.1%로 되레 늘었다. 이같은 정당지지도 변화는 조재환 사무총장의 자금수수와 공천압을 등 구태 재연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후보 선택기준으로는 후보의 '공약이나 업무수행 능력'을 꼽은 유권자가 66.9%로 '이미지나 인상'(14.2%)에 비해 크게 높아 정책선거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4년 전 선거때와 비교해 정당의 공천 관련 비리가 '늘었다'는 14.3%, '줄었다'는 25.2%, '변화없다'는 37.1%였다. 이번 조사 하루 뒤인 2일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82.2%가 찬성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서울시장 오세훈, 강금실에 크게 앞서 경기지사·인천시장도 한나라후보 우세

이번 조사에서는 5·3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인천시장 후보 지지도도 함께 살펴봤다. 그 결과 세 곳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시장 후보 확정 직후인 2일 밤 실시된 서울시장의 경우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48.1%,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27.8%로 오 후보가 20.3%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의 '경선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는 3.1%, 민주당 박주선 후보는 2.5%를 각각 기록했다.

경기지사는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40.4%,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 24.3%, 민주노동당 김용환 후보 5.4%로 조사됐으며, 인천시장은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45.8%, 열린우리당 최기선 후보 15.9%, 민주노동당 김성진 후보 9.7%로 나타났다. 서울시장 후보 지



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0%포인트, 경기지사는 ±3.9%포인트, 인천시장은 ±4.3%포인트다. /정후식기자 who@

정종경 교수팀, 파킨슨씨병 원인 첫 규명

떨림현상과 보행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파킨슨씨병의 핵심 발병원인 유전자의 기능과 상호작용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완전 규명돼 파킨슨씨병 치료에 돌파구가 마련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종

경(43)교수 연구팀은 바이오펜터 업체 (주)넥셀 및 충남대 의대와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파킨슨씨병이 도파민 뇌신경 세포와 근육세포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될 때 유발되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치매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씨병의 치료 및 진단의 개발을 크게 앞당기게 됐으며, 나아가 1조원 규모의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정 교수팀은 지난해 7월 파킨슨씨병의 핵심 유전자로 알려진 '파킨'(Parkin)의 기능을 규명했었다. /연합뉴스

청 비서실 개편 민정-전해철 인사-박남춘 시민-이정호 혁신-차의환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일부 청와대 수석·보좌관 개편을 단행, 문재인 민정수석의 후임에 전해철(44) 민정비서관을, 김완기 인사수석 후임에 박남춘(48) 인사관리비서관을 각각 임명키로 했다고 청와대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프로필 6면>

또 이번엔 물러나는 황인성 시민사회수석 후임에는 이정호(47) 제도개선비서관이 발탁됐고, 공석중이었던 혁신관리수석과 정보과학기술보좌관에는 차의환(59) 혁신관리비서관과 김선화(50) 순천향대 신소재공학과 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참여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정운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며 "비서실 개편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이 마무리되는 주요한 시점인 연초부터 구상했던 것이며 개각, 총리 교체 등 연쇄 인사와 예기치 않은 국정현안으로 다소 지연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 바둑대회

21일 한국기원 남구지부 대회 '光日 아바바둑 초대전' 등을 통해 바둑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바둑을 좋아하는 직장인들의 친목과 기력 향상을 위한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 바둑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 일 시: 2006년 5월 21일(일) 오전 10시~
- 장 소: 한국기원 남구지부(광주 국제호텔 건너편 3층)
- 참가자격: 광주·전남지역 근무 직장인
- 팀 구성: 단체전=1팀 3명(주장·부장·삼장). 한 직장에서 여러팀 참가 가능
개인전=각 팀에서 1명
- 참가신청: 5월 19일(금) 오후 5시까지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 2200-541, 222-8111
한국기원 남구지부 (062) 675-3448
- 참가비: 1팀당 3만원(개인전 포함)
- 시 상: 단체 및 개인별 우승, 준우승, 3위.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 수여

주최: 光日報社 후원: 광주시바둑협회

5일자(어린이 날) 신문 쉽니다

민족의 숨겨진 약국으로 인도의 약학을 위해서... 신풍제약주식회사

버미플루 1알로

“환히 웃는 우리가족”

1회 1정 먹는 구충제 - 버미플루
회충, 오충, 편충, 십이지장충을 한번에 없애줍니다.

복통, 황문주위의 가려움,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기생충은 인체의 장내에서 피를 빼앗아 가며, 식욕부진, 위통, 설사, 빈혈의 원인입니다. 1회 1정으로 회충, 오충, 편충, 십이지장충을 한꺼번에 없애주는 구충제 - 버미플루 이제부터 기생충으로 인한 가족의 질병은 버미플루로 지켜주세요.

1회 1정 복용하는 구충제 - 버미플루 정

버미플루는 환한 사회, 밝은 미래를 위한...
*본사의 의사·약사가 처방하는 '버미플루'는 다른 약과 달리 미약입니다.